

갑작스런 여행

상황에 맞지 않는 여행을 계획했다. 하지만 꼭 가고 싶었던 여행이었다. 목적지는 뉴저지 주 이전에 내가 살던 비행기로 5시간 걸리는 곳이다. 처음에는 이 결정을 고민했지만 둘째와 셋째 아이가 공부하고 있는 곳이라 가야하겠다는 생각을 굳혔다. 그런데 막상 도착하니 셋째 아이는 학교와 하는 일이 있어 곧 만나지 못했다.

도착 하자마자 나와 나의 아내를 기다리던 분은 이전에 함께 교회를 섬기던 권사님 내외분 이셨다. 나와 아내를 위하여 얼마나 깨끗이 본인의 집을 닦고 문질렀는지 바닥이 너무 반들거려 걸어 다니기가 조심스러울 정도였다. 마이클잭슨의 춤을 연상케 하는 발걸음으로 조심 있게 걸어야 했기 때문이다. 그 정도로 사랑을 보여 주셨다. 얼마나 미안하고 고마웠는지 모른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만남이 시작되었다. 이전에 같이 교회를 섬기던 성도들이다.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아침 일찍 함께 아침 식사를 하자고 들 하신다. 하지만 3시간 시차가 있는 곳에서 사는 나에게는 새벽 3시 30분이다. 점심때에는 알고 지내던 목사님들을 만나고 저녁 식사 때에도 성도들을 만났다. 그리고 밤 12시까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리고 권사님 댁으로 돌아와서는 권사님 내외분과 밀렸던 이야기를 나누었다. 어찌나 육신적으로는 피곤하던지 째깍이 시간이 날 때마다 잠을 청했다. 하지만 그분들을 만날 때에는 오히려 힘이 나고 행복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여행을 오게 하셨을까? 생각했을 때 둘째 날 그 답을 풀어 주셨다.

2년 전 나와 내 아내가 동부를 떠나 올 때 성도들이 많이 걱정했었다. 뉴저지에서 살 수 있었지만 사역 했던 지역을 떠나는 것이 맞다는 나의 생각에 동조 하지 않은 것이다. 또 다시 서부로 또한 다시 자리를 잡아야 하는 오레곤에 뚜렷한 목적이 없이 떠나는 자신의 담임목사를 보내며 얼마나 마음들이 아쉽고 답답하고 미안했을까? 걱정뿐이었을 것이다. 그러면서 거의 2년의 시간이 흘렀다. 그리고 다시 만난 나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들었을 때에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들은 나와 나의 아내 얼굴을 보면서 큰 위로를 얻었고 또한 힘을 얻었으며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계속해서 말했다.

그리고 생각을 해 보니 내가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걱정이 되었는지 이제야 깨달은 것이다. 나는 앞으로 바라보며 떠났지만 그들은 나의 뒷모습을 보며 아픈 가슴이었던 것이다.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다. 이제라도 그들을 만나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아쉬움과 아픔을 풀고 그들을 위로하며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 번 알게 하셨기 때문이다. 비록 지난 2년 가까이 사역을 쉬며 선교로 방향을 바꾸려고 했었지만, 하나님은 그분들을 다시 만나게 하시며 아직 더 목회하여야 함을 깨닫게 하신 것이다.

나는 사도바울과 비교될 수 없는 부족한 사람이지만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 들려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디로 가게 하시는지 비전을 나누었을 때에 다시 만나지 못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함께 기도하며 무릎을 꿇고 바울의 목을 잡고 크게 울며 입을 맞추고 근심하며 배까지 전송했던 사도행전 20장의 말씀이 생각난다. 사도바울도 훌륭했지만 그에게 사랑을 거침없이 퍼 주었던 그 장로들의 모습 속에 사도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죽으러 갈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하나님은 지금 내 앞에 있는 오레곤 새로운 교회 성도들도 있지만 동부에 있는 그 성도들을 통하여 내가 누구 인지를 다시 알게 하셨고 그 부르심에 더욱 전념하게 하신다.

5일간의 만남이 너무 짧다는 생각뿐이다. 하지만 각자 맡은 일과 성길 새로운 교회들이 있다. 기도의 제목을 구체적으로 얻어 이제 나의 기도의 시간이 더 길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생긴다.

하나님은 성도의 찢힌 사랑의 관계 속에서 치유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얻어 세상을 이기게 하신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성도에게 근심거리가 아닌 사랑하고 의지할 만한 존재가 되기 위하여 더욱 힘을 내야겠다.